

姜시장·朴지사 “민주당이 호남 홀대” 날선 비판

■광주서 열린 민주 최고위원회서 성토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 당원들의 소외감과 서운함을 작성한 듯 토로하며 민주당이 호남에 더욱 공을 들이는 ‘보은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최고위원들은 최근 5공 세력들의 ‘부활’ 등을 우려하며 “역사 후퇴를 막으려면 반드시 13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지역 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약속했다.

◇민주당 ‘호남 홀대’ 성토=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라며 윤을 댄 뒤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박 지사는 “민주당의 지주 역할을 하는 호남당원들은 의무는 있지만, 권리가 없다”며 당 지도부에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광주·전남·전북 당원이 3만명 정도이고, 부산은 1600명인데 (당 대표 경선 등에서) 인구를 보정해 부산 당원 1명과 호남 당원 20명이 동등한 가치로 보정해주고 있다”며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지역의 매년 당비가 10억원 이상인데, 의무인 당비 납부는 호남지역에서 내고, 권리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당원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원을 탈퇴하겠다. 당비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의 버팀목인 당원이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새로운 지도부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보은의 효과 정치’를 주문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와 관련, “정권교체를 이뤘던 지난 1997년 호남지역 투표율이 87%였지만, 정권을 빼앗겼던 2007년 호남지역 투표율은 6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라고 예상할 때 승리의 ‘키워드’가 될 호남 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호남지역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과 민주당을 어머니와 자식으로 비유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보은의 효과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13일 오전 광주 북구 유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제54차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강기정·추미애 최고위원, 강운태 광주시장, 김한길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박준영 전남지사, 우윤근 전남도당 위원장.

당원 부산 1명이 호남 20명과 같은 대우 당비 年 10억원 이상 내도 권리는 5% 뿐 역사후퇴 막으려면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

우윤근 전남도당위원장도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28만 전남 당원들이 지금 상당한 실망감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당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병완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중 2곳의 후보를 내지 못해 당원들이 서운해 하고있다”면서 “사고 지역위원회인 2곳을 조속히 정상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유신 잔당의 7인회, 5공 쿠데타 세력이 설치되고 있는데 마치 끝투기가 뛰니 망둥이가 뛰는 꼴”이라며 “이것들이 대어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5공세력 부활 시민에 죄송”=김한길 최고위원은 “전두환씨가 육사 사열을 하고, 하나회 출신 정치인이 국회의장에 내정되는 등 광주시민들에게 미안한 일이 너무 많다”며 “이러한 역사 후퇴를 막는 길은 대선 승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고 있다. 5·16 쿠데타 이후 육사생도들이 축하퍼레이드를 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이 전두환이 또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며 “그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최근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은 숨겨진 비자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고로, 우릴 비난해도 할 말 없고...

전두환 보훈처 골프장서 ‘VIP 라운딩’

하나회 출신이 사장

육사생도 사열로 물의를 빚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보훈처 소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 전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육사생도 사열문제로 국가기강 문란 행위를 저질렀던 것도 부족해서 어제는 아침부터 경기도의 88골프장에서 하루종일 골프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시민이 분노해서 제보했고, 그 사실을 제가 언론에 알리자 일부에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12일 밤 ‘뉴스9’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사실

을 보도했다. 강 최고위원은 “아침부터 골프하고 귀빈실에서 식사하고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까지 그렇게 골프 치고 하루종일 접대받을 때가 아니다”며 “29만원 밖에 없는데 전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어떻게 골프를 즐겼는지, 대한민국의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을 자신과 같은 하나회 회원이었던 사장이 있는 그곳,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그곳에서 골프를 친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국가보훈처는 5공 세력에 게 골프장 사장 자리를 줬고, 국가유

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의 여가 생활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88골프장은 보훈처 소관으로 사장인 김모씨는 육사 30기 출신이다. 민주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및 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육사에 가서 생도 사열을 받더니 어찌는 하나회 출신 육사 예비역 장성이 사장이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골프까지 쳤다”며 “유신과 5공 시절로 회귀하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라고 비난했다.

손·盧 국가장도 못한다 국립묘지 안장 원천봉쇄

민주 장병완 의원 발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반국가적 범

죄를 저지른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가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거를 추모하는 것으로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자를 국가장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장의 취지인 국민통합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일보 since 1952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장흥의 기름진 땅에서 생산한 쌀 ‘아르미’

장흥의 기름진 땅에서 우수품종을 종자공급원에서 공급하여 재배농가와 100% 계약 재배하여 생산한 쌀로 가족을 생각하는 정성스런 마음과 장흥군의 자존심을 걸고 생산한 장흥의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친환경 비료사용과 질소비 비료 줄이기 등 쌀 작목반과 계약재배하여 생산한 고품질 쌀로서 적기수확으로 완전미 비율이 높고 적정온도로 건조 별도보관하며 당일 도정 출하하고 있으며 쌀 품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리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 2011, 2012년 3년 연속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선정 기관
전라남도, 한국식품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암리 325번지

문의전화 : 080-777-8184, 061-862-8184